

한국노총전남본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후원하는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추진사업 우수기업 탐방'은 보다 나은 고용환경을 만들고 그 토대위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고용환경개선에 기여함을 인식하도록 집중 홍보 및 캠페인 활동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노사 상호 존중과 배려,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로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전남지역 노사민정 참여와 협력한 사례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

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제공은 궁극적으로 업무효율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모든 사업장이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같은 사업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찾아간다. <편집자 주>

전남동부권 대중교통의 산파 역할로 명문 사업장 '우뚛'

순천교통

무사고 통한 고객 안전 최우선 과제 삼아 선진교통문화 선도
고용환경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지역발전에 기여

운수업의 특성상 무사고 운행 만큼 최고의 가치는 없다. 그것이 곧 고객의 안전이요 종사자 모두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무사고를 통한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남 동부권역 최대 규모의 사업장으로써 대중교통의 산파 역할을 해내고 있는 순천교통.

순천 전역을 비롯해 여수 광양을 운송권역으로 하고 있는 버스 운송 사업에 있어 가히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1964년 3월25일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으니 60년을 훌쩍 넘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중교통계의 명문사업장이라 할 수 있다.

직원수 28여명이 맡겨주듯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도 남다른 공을 쏟고 있다.

차량 보유대수 115대에 확보된 노선은 27개, 1일 승승인원은 4만 8000여명에 이른다.

배차간격은 노선별로 차이는 있지만 5~6분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남 동부권역 시민들의 발이 되고 뗏이 되어 지역민 운송을 사명으로 여기고 묵묵히 선진 교통문화 창출의 선두주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순천교통.

사업의 특성상 연중 무휴로 불철주야 순천을 비롯한 전남동부권역 주민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단 한 사람의 고객이라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다.

업계 최우수기업으로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데 고객을 마치 친구처럼, 가족처럼 여기며 생명존중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무사고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친절하게 모시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차된 시간을 엄수해 제 때 고객을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모시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것을 고객과의 약속이자 서비스사업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

100% 무결점 예방정비로 고장에 따른 불편을 최대한 없애고, 고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객과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천교통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기업이 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적 책임을 경영력의 원천으로 삼고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같은 경영철학은 회사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어져 전남동부권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운수업계의 기둥으로 우뚛 섰다.

사정이 이러하니 종사자들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은 남다르다.

운수업이라는 특성상 종사자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안전운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회사의 크고 작은 배려는 직원들의 회사 사랑으로 이어졌다. 회사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회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순천교통이 오늘날과 같이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노사가 하나 되는 등 가족같은 분위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노사간

무분규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자랑거리임에 틀림없다.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회사의 발전이 곧 조합원의 발전이라는 굳은 믿음을 아래 일치단결해 매진하고 있다.

순천교통이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원인을 찾는다면 투명경영을 꼽을 수 있다. 회사 경영 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사원들이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경영상태에 대한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다.

선진교통문화 창출에 앞장서면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창출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순천교통. 전남동부권역 대중교통 인력 운송수단의 절대 강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임직원 모두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순천=김승호 기자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회사 만든다”

최창구 사장

- ▶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 직원들이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해 노·사간 갈등이 없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 운수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친다. 고객의 안전은 물론 승무원 본인의 안전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경각심을 드높이고 있다.
- ▶ 노사의 관계는 원만하다고 생각하나
 - 모든 일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전에 의논하고 토의하는 등 모범적인 노사상을 확립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이나 갈등의 소지가 미연에 차단돼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은
 - 회사와 나는 둘이 아닌 하나라는 생각을 한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보다는 고객의 시민들과 가족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라고 권한다. 그것이 곧 회사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 노동조합에 당부 또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회사의 발전도 후회도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회사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깨닫고 내가 곧 순천교통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았으면 한다.

“조합원들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박기성 노조위원장

- ▶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며 어떠한 문제 발생 시 일방적인 행동보다는 노사가 만나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 ▶ 노조를 이끄는 데 있어 소신이나 원칙이 있다면
 - 조합원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며 조합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조합원 단합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은
 - 조합원의 궁극한 점이나 조합의 필요성 등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배려의 정도는
 - 일방적인 행동보다는 노·사가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여 결정하는 상생하는 노사의 표본이래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 조합원들의 애사심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
 - 조합원의 애사심은 동종업계 어느 회사와 견주어도 탁월하다 할 정도로 대단하다. 일제로 차고지로 들어올 때 미리 에어컨을 끄는 등 회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무척 애를 쓰고 있다.

▶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소개한다면

-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만들고자 한다.

최남규 기자